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둔 박성현의 화려한 드라이버샷

골프여제 자리 노린다

박성현, 이달 중순 미국 돌아가 내년 시즌 출격 준비... 3승+베어트로피 목표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휩쓴 '슈퍼루키' 박성현(24·KBH하나은행)이 내년 시즌에는 '골프여제'의 자리를 노린다.

LPGA 투어 신인상과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 등 3관왕을 차지한 박성현은 지난 4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불과 1년 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평정하고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 주목 받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시즌 초반부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경쟁력을 입증한 박성현은 7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캐나다 퍼시픽 오픈에서 두 번째 정상에 오른 뒤 39년 만에 LPGA 투어를 평정한 최고의 신인으로 각광을 받았다.

박성현은 올 시즌을 최고의 해라

고 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해 '100점 만점에 75점'이라는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신인으로서 많은 것을 이뤘지만 우승권에서 경쟁한 만큼 아쉬운 순간들도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막판 우승 경쟁에서 밀려난 것을 아쉬워했다.

박성현은 "내년에는 마지막까지 우승을 놓고 경쟁하고 싶다. 3승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렉시 톰슨(미국)에 밀려 2위에 머문 최저타수상에 대한 미련이 남았는지 "사실 마지막에는 욕심을 냈지만 받지 못했다.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올 시즌 여러 지표에서 KLPGA 시절보다 괄목한 만한 성장을 했지만 비가 내리거나 강풍이 부는 날에는 경기력이 떨어졌던 약점도 보

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현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탄도가 높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약한 것이 사실이다. 탄도를 낮출 생각은 없지만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족했던 25점을 채워가겠다고 약속한 박성현은 이달 중순께 미국으로 건너가 내년 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아직 내년 시즌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바하마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건너뛰고 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스링'을 겨냥하고 있다.

2018년 박성현이 골프 역사에 또 다른 발자취를 남기며 골프여제의 칭호까지 얻을 수 있을지 세계 골프계가 주목하고 있다.

/뉴시스

'명가재건' 삼성화재, 12연승 도전

오늘 현대캐피탈과 맞대결

명가 재건을 노리는 프로배구 삼성화재의 기세가 드높다.

매 경기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화재가 이제 12연승에 도전한다.

삼성화재는 6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현대캐피탈과 2017~2018시즌 3번째 맞대결을 치른다.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과의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삼성화재가 승리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11연승을 달리는 등 무서운 기세와 집중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삼성화재는 지난 2일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일궈냈다.

5세트 9-14로 뒤진 상황에서 타이스의 고공폭격을 앞세워 14-14 듀스를 만들었다. 이후 불꽃 튀는 공방 끝에 22-20으로 승리했다. 삼성화재 선수들은 챔피언결정전 우승이라도 차지한 듯 모두가 환호했다. 집념이 만들어낸 승리다.

삼성화재는 시즌 11승2패(승점 30)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 현대캐피탈(7승패·승점 22)과 격차가 커 이번 맞대결에서도 승리하면 독주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삼성화재가 현대캐피탈을 제압한다면 팀 단일 시즌 최다 연승(13연승)에 도전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2006, 2009년 두 차례 13



명가 재건을 노리는 프로배구 삼성화재 배구단.

연승을 거뒀다.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연승은 현대캐피탈의 18연승(2016년 1월22일~3월6일)이며, 역대 최다 연승은 현대캐피탈이 두 시즌에 걸쳐 기록한 21연승(2016년 1월2일~10월28일)이다.

개막 2경기에서 2연패를 당한 삼성화재는 이후 공수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철우는 2라운드 MVP로 선정될 정도로 뜨거운 화력을 뽐낸다.

공격을 분담한 라이트 박철우와 레프트 타이스 둘 다 공격 성공률이 매우 높다. 박철우(59.15%)와 타이스(56.07%)는 공격성공률 1, 2위를 달리고 있다. 팀에 특점이 필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노릇을 하며 연승을 이끄

는 중이다.

세터 황동일의 잠재력은 삼성화재로 와서 마침내 빛을 발했다.

다소 안 좋은 발도 특점으로 성공시켜주는 공격수를 덕분에 자신감이 붙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배구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박상하와 김규민이 버티고 있는 센터진도 위협적이다. 부용찬 류윤식의 수비 능력도 조직력을 단단하게 하고 있다.

선수단은 지난 시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다. 명가 재건을 외치며 반격에 나서자마자 1위를 달리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했다.

/뉴시스

오타니 쇼헤이, 영입경쟁 7구단으로 압축

오타니 쇼헤이(23) 영입장이 뜨거운 가운데 7개 팀이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됐다.

미국 현지 미디어는 5일(한국시간) 오타니 측이 메이저리그 7개 구단과 면담한다고 보도했다.

협상을 벌일 7개 구단은 시애틀 매리너스, 텍사스 레인저스, LA 에인절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다.

지난달 오타니는 대리인을 통해 메이저리그 전 구단에 자신을 영입하려는 이유와 투타 겸업 등 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30개 구단 중 27개 팀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부에 위치해 있고 스톨 마켓 구단을 선호하는 오타니는 답변서를 내용을 검토한 뒤 후보군을 추렸다.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는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오타니는 이날부터 7개 구단과 만나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양키스는 5일(한국시간) 분을 제33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다. 2021년에는 구단 옵션이 걸려 있다.

1997년 신시내티 레즈에서 바리그에 데뷔한 분은 양키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플로리다 말린스(현 마이애미 말린스), 워싱턴 내셔널스,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거치며 12시즌 동안 바리그에서 활약하다가 2009년 은퇴했다.

분은 1152경기에 출전한 분은 타율 0.268 128홈런 556타점 107도루 519득점의 성적을 남겼다.

분은 "양키스 감독으로 다시 핀 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는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감독으로 일하는 것을 기대될 수 없을 정도로 양키스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에 흥분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뉴시스

박혜진, WKBL 2라운드 MVP 선정



언론사 기자단의 2라운드 MVP 투표에

박혜진(27·우리은행)이 여자프로농구(WKBL) 2017~2018시즌 2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WKBL은 5일

서 우리은행 박혜진이 총 71표 중 53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다미리스 단타스(국민은행·13표), 김다비(신한은행·5표)를 제치고 2라운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뽑혔다. 박혜진이 2라운드 MVP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2013~2014시즌 1라운드를 시작으로 2015~2016시즌 2라운드에 이어 2016~2017시즌 4, 5라운드 연속 선정된 바 있다.

2라운드 전경기(5경기)에 출전한 박혜진은 경기당 평균 38분50초 동안 코트를 누비는 강철 체력을 자랑했다.

평균 12.8점 5.4리바운드 8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하며 공수에서 전천후 활약을 펼쳤다.

박혜진의 종합무진 활약으로 우리은행은 2라운드 4승1패로 상승세를 탔다.

박혜진은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MVP를 모두 차지하는 등 WKBL 최고의 선수로 평가 받는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